

"꿈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라!"

근무 직위 : 인턴

부서 : 글로벌콤팩트 사무소 (Global Compact Office)

기구 : 유엔 본부 (UN Headquarters)

이름 : 박예린

● 내가 일했던 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

나는 2010 년 7 월 초부터 2010 년 12 월 말까지 약 6 개월 동안 뉴욕 유엔본부의 Global Compact Office (이하 '글로벌콤팩트 사무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다. UN Global Compact 는 지난 2000 년 창설된 유엔과 기업 간의 파트너십,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유엔이 목표로 하고 있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및 각종 국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유엔의 협약 이니셔티브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8,000 여개의 Global Compact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로 하여금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 대 분야에서의 10 대 원칙을 기업의 경영 전략과 결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 세 번째 도전 만에 유엔본부 인턴십을 얻다

나는 세 번째 도전 끝에 유엔본부 인턴십을 하게 되는 행운을 얻었다. 사실 유엔본부 인턴십은 본인이 국제대학원에 입학하기 전부터 반드시 하리라고 목표로 하였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지금은 인턴 선발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1 년에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유엔본부 인턴을 선발하였다. 첫 번째 도전은 2008 년 겨울로, 지원 당시에 대학원 재학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 도전은 2009 년 여름이었는데 역시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지원 시에는 약 3,000 자 가량의 에세이를 제출하게 되는데 에세이를 두서없이 작성하였고, 또 나의 주요 경력이나 역량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부서에 지원하였던 것이 패인이었던 것 같다. 세 번째 도전 끝에 2010 년 유엔본부 하계 인턴으로 마침내 선발될 수 있었다. 나는 2008 년에 약 5 개월 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이러한 경험과 배운 점을 에세이에 잘 피력하려고 노력했고 글로벌콤팩트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였다. 유엔본부 인턴을 희망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지원 시 제출하게 되는 에세이에 최대한 지원하는 부서나 기구와 연관이 있는 본인의 역량 및 장점, 그리고 유엔 본부 인턴십을 통해 하고 싶은 일과 얻고자 하는 바에 관하여 긴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며 작성할 것을 권해 드리고 싶다.

● 내가 맡게 된 주요 업무

나는 본래 3 개월에 조금 못 미치는 기간으로 인턴십을 배정 받았지만, 조직의 특성과 업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자 인턴십을 6 개월로 연장하였다. 나는 'Local Network (이하 '지역 네트워크')' 팀에 배정 받게 되었다. 지역 네트워크란 국가 별로 Global Compact 의 원칙과 CSR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일종의 지부 또는 협회를 일컫는다 (한국에도 2007 년 설립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존재한다). 나중에 오피스 인사 담당자가 오리엔테이션 때 한국협회에서의 경험 때문에 나를 지역 네트워크 팀에 배정하게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글로벌콤팩트 사무소에서는 인턴들에게도 정직원 못지않게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지역 네트워크팀에 있으면서 내게 주어졌던 주요 업무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글로벌콤팩트 본부 오피스와 90 개가 넘는 각국 지역 네트워크 간의 연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였다. 각 지역 네트워크가 'Global Compact'라는 브랜드 이름을 갖고, 또 로고를 사용하며 Global Compact 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매년 본부와의 양해 각서 체결이 필수 요소이다. 나는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 본부 입장에서 각 지역 네트워크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follow-up 을 충실히 하는 역할을 맡았다. 두 번째 업무는 각 지역협회 간에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 지원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나의 직속상관이 역점을 두었던 일이기도 하였다. 본 프로젝트를 위해 나는 각 지역협회의 공식 홈페이지, 브로셔, 각종 자료집 등을 토대로 CSR 장려 및 글로벌콤팩트 관련 활동 모범 사례들을 찾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세 번째 업무는 글로벌콤팩트가 주관하는 '유엔민간부문포럼 (UN Private Sector Forum; 유엔 총회의 한 세션으로 진행되는 유엔-비즈니스 파트너십에 대한 포럼이다)' 등 각종 국제 컨퍼런스 등의 참석자들을 관리하고,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는 일이었다. 마침 9 월 유엔 총회 기간이 내가 체류하고 있던 기간과도 겹쳐 많은 유엔이 주관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참관할 수 있었고, 각국 정상 및 유명 인사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 유엔본부 인턴십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로 삼다

유엔본부에서의 인턴십은 나의 강점을 가장 잘 피력할 수 있는 동시에 내가 그 동안 안고 있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준 소중한 기회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적극성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외국에서의 업무 환경에 있어본 경험이 없다 보니 처음에는 그들의 치열한 토론 문화와 적극적으로 업무를 스스로 찾아 하는 것에 대해 낯설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스스로 치열한 학습 과정을 통해 나의 단점을 고쳐보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람들에게 질문도 많이 하고 의견도 많이 내 보려고 하였으며 일이 많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일을 달라고 부탁을 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예년에는 60%대에 머물던 본부-지역협회 간 양해각서 체결률을 80%가 넘는 수치까지 끌어올리는 등 맡은 업무를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수행하였고, 내가 담당하지 않았던 글로벌콤팩트의 다른 분야의 프로젝트들도 경험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근무 기간 동안 융화력과 소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유엔은 그 어느 곳보다도 '다양성'이라는 근무 환경의 특수성이 있기에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조직 구성원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끊임없이 조직의 비전에 대해 교류하는 자세를 유지하였다. 또한, 업무 외적인 측면에서도 직원들 간의 사교 행사에도 꾸준히 참석하고 나 역시 한국 문화도 많이 소개해 주고 각자의 문화를 소개 받으며 우정을 나누고 교류의 장을 넓힐 수 있었다. 이러한 업무 외적인 교류와 소통의 강화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파티 및 사교 모임에 될 수 있으면 빠지지 말고 참석하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혹 몇몇 인턴들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거나 행정적인 지원 업무가 주어지면 불만을 늘어놓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이는 옳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본인에게 어떤 업무가 주어지든 간에 나는 그것을 책임감 있게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나누고 봉사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라

인턴십 기간 중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과 유엔본부 인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단체 사진촬영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반 총장님께서 인턴들에게 "앞으로 국제 사회를 책임지게 될 여러분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일해 달라- '나눔

(share)' 과 '봉사 (serve)' 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과 포괄적 성장의 증진'이라는 나의 커리어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엔본부 글로벌콤팩트 사무소에서의 6 개월 인턴 경험은 이러한 목표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이자, 개인적으로는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였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귀중한 자산이 된 시간이다. 이 수기를 읽고 계신 확고한 꿈을 간직한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말고 열정을 갖고 기회를 만들고, 꼭 유엔본부 인턴십에 도전하시기를 바란다.

